
개관 및 종합평가

금융안정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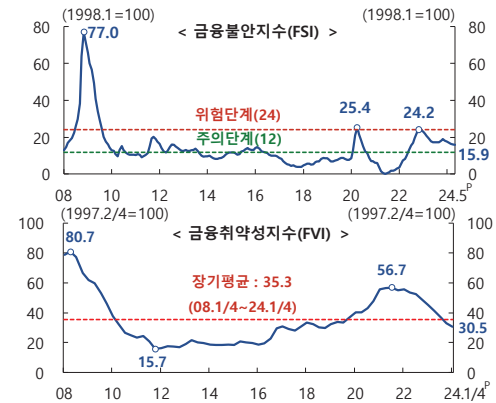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 금융기관의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차주의 상환부담 지속, 부동산PF 시장 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가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¹⁾는 2024년 5월 15.9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은 완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등 금융불균형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및 환율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건전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²⁾(FVI)는 2024년 1/4분기 30.5로 장기평균(08년 이후 35.3)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불안지수(FSI)¹⁾ 및 금융취약성지수(FVI)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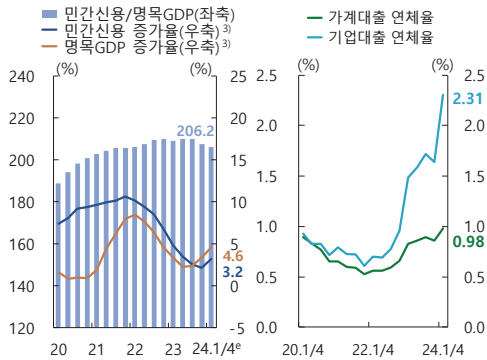
- 주: 1)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부분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각각 12과 24로 설정
2) 중장기적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3) 모수의 시변성으로 인해 향후 지수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보다 실물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 3/4분기 이후 하락하였다. 가계신용의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과 판매신용이 감소하면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가계의 채무부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다만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업종 업황 부진,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었다.

1)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 비율(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12와 24로 설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2)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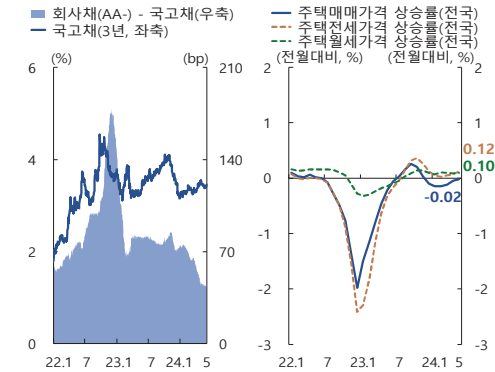
민간신용¹⁾ 레버리지²⁾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



주: 1) 지급순환통계 기준(2024년 1/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2020년 기준) 합산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물가·경기 추이 등에 따라 시장금리와 주식가격이 등락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줄어들고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주택가격의 경우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하였다. 전월세가격은 주택매매 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주택 물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 임대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상가는 부진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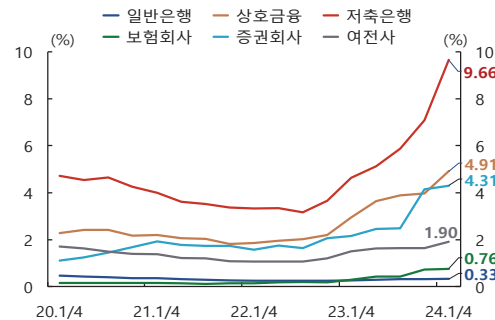
국고채금리 및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와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금융업권 간에 다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 보험은 자산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인해 자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수익성 악화도 지속되었다.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이 대체로 저하되었다. 한편 자산건전성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악화되었는데, 은행의 경우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에 힘입어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제약되는 모습이나, 비은행업권에서는 부동산PF 부진 지속 등으로 인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금융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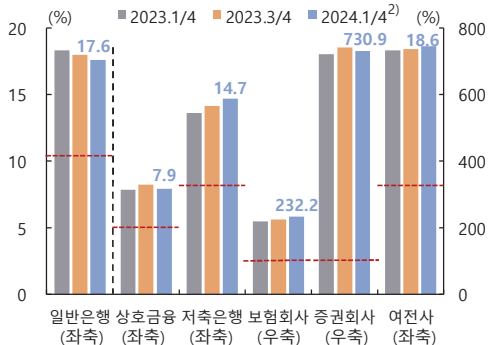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본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자금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유지,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고,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IT기업의 업황 개선 전망,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순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감내능력을 의미하는 복원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¹⁾



주: 1) 붉은색 점선은 각 업권별 규제기준을 의미
2) 보험회사는 2023년 4/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과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이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 축소 등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계감도 완화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감독당국 및 한국은행도 최근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등을 통한 불확실성 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국내 금융시장 전이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대응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 누증³⁾, 부동산PF 부실 우려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⁵⁾,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여건⁶⁾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의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해 있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3)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최근 가계·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 변동 특징」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부동산PF 관련 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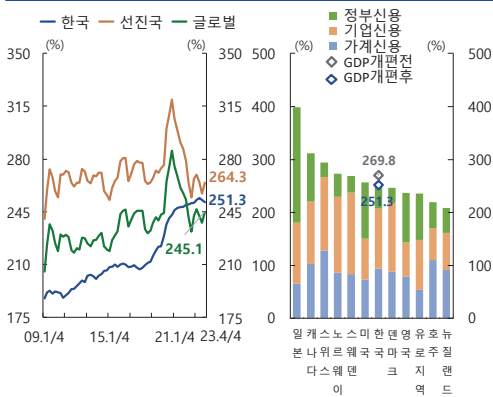
5)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금리국면별 은행 수익성 변화 요인 및 향후 주요 고려사항」과 <참고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2022년 하반기와 최근 환율 상승기의 대내외 여건 비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을 고려하여 매크로레버리지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재구축한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 2.0)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먼저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및 정부 부문의 부채 규모를 의미하는 매크로레버리지(macro leverage)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평균보다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계, 기업 등 민간신용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매크로레버리지의 질적 측면에서는, 채무 보유 가계의 상환능력이 양호하고 기업 전반의 재무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선진국 대비 높은 점,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채무 보유 비중이 확대된 점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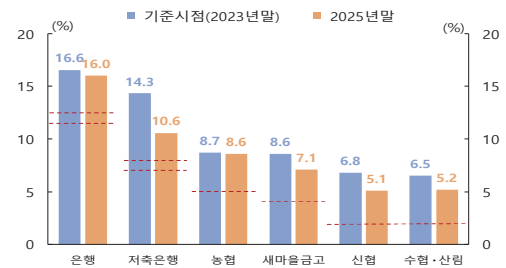
매크로레버리지 추이 및 국가별 매크로레버리지¹⁾ 비교



주: 1) 2023년 4/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BIS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에 활용해왔던 통합 모형인 SAMP(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를 금년에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⁸⁾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전면 재구축(SAMP 2.0)하였다. 부동산PF 관련 신용위험, 지정학적 갈등 등 최근 대내외 거시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 재구축 모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별로 취약부문의 충격 강도를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거시경제 충격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의 자본비율은 전반적으로 규제기준을 상회하지만,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내 취약그룹을 중심으로 복원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권의 금융시스템 내 낮은 비중 및 상호연계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⁹⁾

시나리오 적용시 은행¹⁾, 저축은행²⁾, 상호금융³⁾의 자기자본비율 변화



주: 1) 은행: BIS 총자본비율 기준, 감독기준(경기대응완충자본 포함) 11.5% (D-SIB은 12.5%)
 2) 저축은행: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기준,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상호금융: 순자본비율 기준, 감독기준(농협 5%, 새마을금고 4%, 신협·수협·산림 2%)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1> 「매크로레버리지 평가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8)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23년 10월 30일)을 통해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관련 정보공유 확대 및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이후 금융기관의 차주별 정보 등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이를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재구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9)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2>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재구축 및 금융기관 복원력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책 대응 방향

먼저 정부와 감독당국은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업 및 시장참여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금융업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흡수능력 강화와 함께 부실자산 매·상각 활성화 등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일부 비은행업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¹⁰⁾을 고려하여 유동성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의 경우 금년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DSR 적용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신용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여타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금융안정 상황 : 안정적

실물경기 회복 민간신용 레버리지 하락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 양호	금융 불안지수 (FSI) 완만한 하락세이나 비은행 연체율 상승으로 주의단계	금융 취약성지수 (FVI) 금융불균형 축소로 상당폭 하락하며 장기평균을 하회
---	---	--

취약성 평가	리스크 요인
신용시장 취약부문 채무상환부담 누증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관련 불확실성
자산시장 부동산PF 관련 부실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 불안 가능성
금융기관 비은행 업권의 자산건전성 악화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정책대응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시장 불안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 부동산PF 구조조정 관련 불안에 대비한 건설기업 및 시장참여자 등과의 소통 강화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자산 매·상각 활성화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 지속 •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
민간신용 관리 강화 및 취약부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 노력 - (가계) DSR 적용범위 적정성 검토 및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 병행 - (기업)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산업별 위험 관리 • 차주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지속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전개양상 모니터링 강화 및 정책당국 간 협력 지속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